

TIPLONews 한국어본

2026 년 5 월호(K321)

이달의 주제

K260402Y1

01 대만기업 CHPT 는 이탈리아 기업 Technoprobe 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으며, 중간 판결이 나왔다.

대만기업 CHPT¹⁾는 이탈리아 기업 Technoprobe²⁾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중대 공시를 발표했다.

CHPT 는 이번 사건이 Technoprobe 가 자신들의 대만 특허 제 1705249 호 「시험 헤드용 복수의 접촉 프로브를 포함하는 반제품 및 관련 제조 방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3,165 만 대만달러이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1 년 넘게 진행된 심리를 거쳐, 2026 년 4 월 2 일 중간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증거보존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CHPT 가 특정 시험에 사용한 반제품 프로브가 계쟁 특허 청구항 1 및 17 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등 쟁점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CHPT 는 1 심 중국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2026.04)

역주:

- 1) 중국어명 中華精測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Chunghwa Precision Test Tech.Co., Ltd (CHPT)
- 2) 이탈리아 기업 Technoprobe S.P.A.를 지칭 (Technoprobe)

02 대만 경제부는 「양자산업 기술진흥 사무소」를 설립

대만 경제부는 2026 년 4 월 27 일, 「양자산업 기술진흥 사무소」¹⁾의 공식 설립을 발표했다.

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직 설립을 넘어, 대만이 「실리콘 섬」에서 「양자역학 섬」으로 변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소는 「핵심 추진자」이자 「자원 통합자」로서, 대만 제조업체들이 양자역학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자역학 대만」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며, 대만이 「실리콘 섬」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양자역학 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쓴 다음에 양자 과학 기술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차세대 과학 기술 혁명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대만은 양자 과학기술 시장 진출에 있어 세 가지 주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양자 컴퓨터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대만은 저온과 상온을 연결하는 「커넥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제어 칩과 부품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둘째, 제조 측면에서 대만은 반도체 공정 및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웨이퍼 파운드리부터 이종 집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 이는 양자 비트 ²⁾ 제조에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셋째,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 대만 제조업체들은 서로 다른 기술과 제조업체의 부품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데 탁월하며, 이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이와 관련, 경제부는 적극적으로 양자 기술 및 산업 전략을 준비 및 진행해 왔으며,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는 영하 269 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극저온 제어 칩 개발, 그리고 국제 기업과의 협력, 예로 미국 SEEQC 와의 양자 칩 개발 협력, 미국 Rigetti Computing 과의 극저온 모듈 개발 협력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만 양자 분야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들의 양자 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적극적으로 수주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부는 「양자산업 기술진흥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무소는 양자 기술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만 공업기술 연구원³⁾의 연구 역량과 민간 기업의 강점을 연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제부 산하 산업기술국은 「양자산업 기술진흥 사무소」가 「협력, 실행, 연결」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국제 협력 실행을 촉진하고 해외 양자 분야 선도 기업들이 대만에 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하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행을 넘어 국내 공급망의 심도있는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둘째, 산업 기술 지도를 심화할 것이다. 경제부의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과 기술지도 체계를 통해, 제조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정확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셋째, 영역을 넘는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포럼 그리고 그에 연계하는 회의를 통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거리를 단축하고, 기술 역량을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자산업 기술진흥 사무소」는 「산업체계 통합자」와 「국제 연결 고리」라는 두 가지 역할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단체와 협력 교류하는 플랫폼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도적인 국제 기술 국가들과의 협력 및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의 대만 현지화를 가속화하며, 핵심 양자 부품의 제조 및 응용 서비스가 발전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경제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대만내 양자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입지를 강화하고, 양자역학 대만이라는 장기비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세계 기술 산업에서 대만의 핵심적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다.(2026.04)

역주:

- 1) 중국어명은 量子產業技術推動辦公室, 영어명은 Quantum Industry Technology Promotion Office (양자산업 기술진흥 사무소)
- 2) 원문은 量子位元이고 이를 양자 비트 번역했다.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는 양자 컴퓨팅에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의 기본 단위이다.
- 3) 중국어 工業技術研究院, 영어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공업기술연구원)

TIPLO
Attorneys-at-Law

03 대만과 프랑스 간 산업혁신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 설립, 6 개의 연구 개발 협력 프로젝트 착수

대만 경제부는 2026 년 3 월 31 일 대표단을 이끌고 프랑스를 방문하여 제 1 차 대만-프랑스 양자간 사업공모를 통해 선별한 6 개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26 년 6 월에 진행되는 제 2 차 사업공모와 더불어, 경제부는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¹⁾과 세계적인 위성통신사업자 Eutelsat 간의 양해각서 체결도 지원했다. 양측의 협력을 통해 대만 기업들은 향후 유럽의 저궤도 위성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2025 년에 체결된 「산업혁신 및 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대만과 프랑스는 최초로 공동 사업공모(Joint call) 제도를 도입했다. 대만 산업발전부와 산업기술부, 그리고 프랑스 Bpifrance²⁾의 공동지원을 받아 시행된 이 제도는 첫 해에 10 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6 개의 대표적인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 및 승인했다. 선정된 6 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실리콘 포토닉스, 첨단 디스플레이, 바이오의학 응용 분야 등 핵심 기술 분야로, 미래발전 가능성과 산업적 응용 잠재력을 갖고있다.

저궤도 위성 및 통신 분야에서 대만의 공업기술연구원과 Eutelsat 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공급망 협력 및 도입, 산업 생태계 연계 그리고 핵심 통신 기술 연구 개발등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6G 위성 통신 표준, 다중궤도 통합 응용 프로그램(GEO/LEO) 및 위성 광대역 응용 시나리오등에 대해 공동 개발하여, 대만의 통신 안정성과 국제 시장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드론 분야에서도 주요 유럽 드론 제조업체들과 공급망 협력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미래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대만 프랑스 양국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 2 차 협력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드론 공급망, 반도체, 로봇, 우주 및 저궤도 위성, 통신, 생명공학 및 제약, 기술 스타트업, 순환 경제 및

해상 풍력 발전 분야등이다.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과 산업 수요 및 기술 자원 연계를 통해, 본 협력은 대만 기업들이 프랑스의 기술, 연구 개발 및 시장에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국제 시장으로 공동 진출하고,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2026.04)

역주:

- 1) 중국어명 工業技術研究院, 영어명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공업기술연구원)
- 2) 정식명칭은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약칭은 Bpifrance 이고,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이다.

TIPLO
Attorneys-at-Law

K260415Y6

04 2025 년 대만 세관에서 압수한 위조품 가운데 담배, 의약품, 의류가 상위 3 대품목이었다.

대만 재정부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5 년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430 건을 적발하였고, 압수한 위조품은 492 만개에 달하였으며, 침해 제품의 시장 가치는 9 억 대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대만 세관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려는 결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25 년 주요 위조상품의 유형은 담배, 의약품, 의류가 상위 3 대 품목이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와 국제 택배의 발달로 불법 업자들이 해상 및 항공 특송이나 컨테이너에 위조 상품을 숨겨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조된 담배와 의약품을 주요 국경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으로의 품질이 낮은 위조 상품 유입을 막고자 하였다.

「위조 상품의 대만내 유입 차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 세관은 2025 년에도 수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외 고위험군 제조업체 및 공급처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국내외 유명 브랜드 소유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품/위조 상품 감별 워크숍을 총 8 회 개최하였고, 일선 세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위조 상품 수사의 성과와 효율을 높이려 하였다. (2026.04)